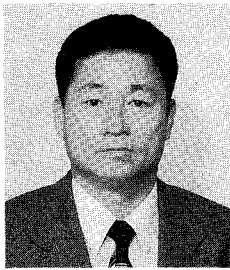


분과위원장에 듣는다(육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힘 모을 때



최길영

(본회 육계분과위원장/영남농장 대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희망과 꿈을 한아름 안다시피 한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내일을 위해 또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새해를 맞게 되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 육계업을 하는 모두에게 희망과 좌절을 안겨준 한해였지만 말없이 침묵 속에 미래를 위해 창조하고자 하는 육계인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빌어본다.

지난 봄에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닭 가격 상승으로 입추 열기에 빠졌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가의 닭 가격이 장기간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육계업자들은 장님이 되다시피

하여 어느 해 보다 가을철 입추가 늘어나게 되었다.

입추열기가 고조되면서 근래 보기 드물게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많은 양의 병아리가 입추되었다. 4개월 동안 생산비에 못미치는 닭 가격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추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고 본다.

계절적인 소비형태와 우리나라 침체된 경기를 감안할 때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도 아주 오랜 세월을 닭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기에 육계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그러나 우리 육계업계가 힘을 합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리라 생각되기에 육계업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시코자 한다.

첫째, 농림부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오랜만에 농림부 당국에서도 우리 육계업에 관심을 갖고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금년도 사업으로 닭 뉴캐슬병 근절 강화 대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ND근절 목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대·투자과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 꼭 우리 육계 업계가 바라고 바라던 사업이 아닌가 싶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옛말처럼 양계협회 임원께서 당국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욕심이 있다면 농림부의 통계와 실제 오차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더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

살처분 보상 문제와 예방접종을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이 되면 차등지급(시가 40%~80%)을 한다고 하니 우리 육계업계도 반듯이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서도 실천이 부족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시작을 아니한 것만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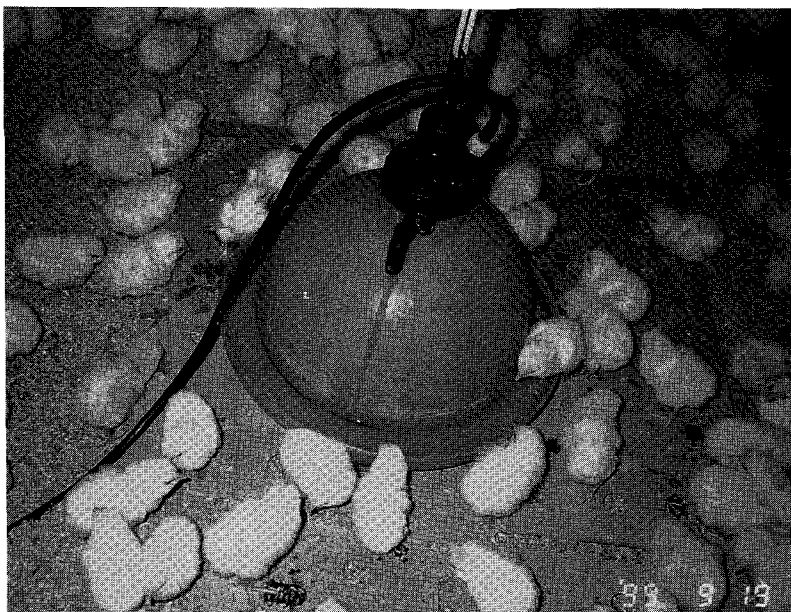
육계 농가 및 단체에 대한 방역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다.

둘째 계열 주체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육계업이 이 만큼 발전한 것도 계열주체들의 노력이 없었다고는 아무도 부인을 못 할 것이다.

우선 생산측면에서 보면 규모를 확대시키면서 수동시설에서 자동화시설을 도입시켰고, 보온덮개 기사에서 영구계사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유창계사에서 무창계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창계사에서 사육하는 육계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계열업체들의 지원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 육계생산기술이 어느 나라 못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생산자의 피 눈물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기술이 세계적이면 소비 수준도 세계적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머나먼 길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좋은 제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다한 경쟁보다 끝이 없는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육계업 발전을 위해서는 닭고기 제품의 다양화로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육계 생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육계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 육계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이면 더위와 싸워야 하고 겨울이면 추위와 싸우다 보면 한해를 보낸다.

고가의 병아리와 과다한 난방비로 생산비 조차 건지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어느 누가 육계업의 희망이 있다고 보겠는가.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종계입식 숫자 등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겹친다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육계업자들은 남의 권유보다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농가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육계업을 평생 천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속담 처럼 '잘되면 내 닷 못되면 조상 닷'이란 말처럼 모든 것을 남의 닷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육계

업을 이끌어 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산자들이 업계의 발전보다 개인의 이익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육계업이 발전하자면 개인사양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육계생산 농가는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육계 생산에 임해야 할 것이고 계열주체는 밭에다가 거름을 주는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부터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 육계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걸어가는 길을 연구한다면 진정한 삶의 등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쓴 눈물의 고난이 땀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양계

열풍기 수리전문

각종 열풍기 수리, 개조, 교체
행, 경보기, 급이기, 급수기설치

상담 및 문의

대표 : 하 재 일
휴대폰 : 011-738-6084
팩 스 : 031-408-8965